

완도 '해양치유' 최고 경영 대상 수상

도시 브랜드 경영 부문

완도군은 지난 4일 더플리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 시상식의 도시 브랜드 경영 부문에서 '해양치유'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저출산,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자체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9년 전부터 육성해 왔다.

해양치유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완도군은 청정한 환경, 다양한 해양자원 등을 보유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로 꼽히며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각종 해양치유 공공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16개 테라피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하면서 산업이 본격



에 올랐다. 해양치유센터는 개관 이후 현재까지 1만 9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해양치유이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힐링의 핫플레이스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양치유, 해양문화치유, 약산 해안치유의 숲, 청산 해양치유공원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선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완도=이두식 기자

목포, 걷기좋은 도시 환경조성 '온 힘'

초당산·동목포웰빙공원 맨발길 등 시민 '호평' 두발로 목포한바퀴 걷기 도전... 올해 6차례 진행

목포시가 걷기좋은 도시 환경조성과 걷기 도전 행사를 통해 시민건강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따뜻한 봄기운을 만끽하면서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는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걷기는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감소 등 정신 건강에도 효과가 크다. 특히, 맨발로 걷는 것은 만성 염증 예방 치료, 비만 예방, 체질 개선, 피부미용, 신경통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목포시는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시는 시민의 건강증진, 숲

체험과 휴식을 위해 도심생활권 산림과 공원지역에 양울산 '맨발로 청춘길'과 초당산 '오감만족 맨발길'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맨발 황토길은 지난 겨울철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

이런 맨발 길은 주로 신도심권에 위치해 원도심권 주민들이 이용을 위해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맨발 황토길을 조성하고 세족장과 음수대, 신발보관함, 휴게의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동목포웰빙공원 일

원에 황토맨발길을 조성했다. 동목포웰빙공원은 목포시 허파 역할을 하는 대표공원으로 맨발길은 길이 750m, 폭 1.5m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힐링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시는 올해 유달산, 삼학도, 양울산 산림욕장, 입암산 등에 황토 맨발길을 조성하는 등 권역별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세족장과 음수대, 신발 보관함, 휴게의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이도웰빙공원에도 맨발길을 추가 조성한다. 이어 초당산과 옥암수변공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황토길을 조성하기 위해 노면관리 및 배수시설 보강, 야간이용객 안전을 위한 보안등 등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맨발길 주변 곳곳에 계절감

이 있는 양벚, 동백 등 꽃나무와 맥문동 등 초화류를 식재해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고 그늘막, 꽃나무, 초화류를 식재해 명품숲이 있는 맨발길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맨발길 외에도 시는 걷기 좋은 길을 활용해 일상속에서 매일 걷는 시민 건강걷기 프로젝트로 '두발로 목포한바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건강걷기 챌린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을 제외하고 한달간씩 총 6회를 운영하고 4월 챌린지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도전 기간 동안 한달에 17만 5천 걸음을 달성하면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스타벅스 카레라떼T)을 제공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 환경 조성은 물론, 권역별로 맨발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건강을 챙겨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영암 '한옥문화 비엔날레 개최' 잔걸음

도시 브랜딩 전략 연구 심포지엄 성료

영암군이 지난 4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도시 브랜딩 전략 연구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암군에서 한옥 건축 박람회 재개최 추진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기획됐다.

영암군은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반영해 새로운 컨셉의 한옥 박람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옥 고유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전통 주거문화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 등을 통해 헤리티지와 아트페어가 결합된 비엔날레 형태로 확장에 나선다.

김덕룡 서울한옥박람회 조직위원장의 축하 인사로 문을 연 이날 심포지엄은 1부 '헤리티지와 예술을 통한 도시사례 분석', 2부 '헤리티지 비엔날레의 가능성과 도시 브랜딩'

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우송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서울한옥박람회 김덕룡 조직위원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장현덕 교수, 서울공예박물관 김수정 관장, 중국 톈지대학교 이용우 교수, 문화유산산업진흥원 박경철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옥 건축 박람회는 전남 영암군에서 최초 개최한 한옥 박람회로, 2010년 제1회 <천년의 유혹, 녹색의

꿈>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8회 진행해왔다.

1회부터 6회까지 전남 영암에서 박람회를 진행하였으며 군서면 한옥 건축박람회장인 '목재문화체험장'을 건립했으나, 단순 건축박람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영암군은 한옥의 기능적 측면에 국한된 박람회에서 벗어나, 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도시 브랜딩 사업으로 연계 및 인구 유입과 소득 창출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2024 한옥 박람회 개최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박람회 전략 및 개최지와 연계한 도시 브랜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암군은 한옥 건축 박람회 최초로 시작지로서 비엔날레 전통성을 확보해, 한옥 고유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로 연결할 계획이다.

전통 주거 문화를 도시 브랜드화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실현하며, 신항류 열풍 확산에 따른 국가 간 문화 교류 확대로 국제 비엔날레로 영역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해남, 한전-한전MCS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손'

전기사용량·검침 결과 이상 발견시 현장방문 실시 협업체계 구축

해남군이 최근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한전MCS주식회사 해남지점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해소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남군 김차진 부군수와 한국전력공사 박형근 지사장, 한전MCS주식회사 김수진 해남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열린 협약식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전 해남지사는 사용량 이상 고객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상 발견 시 해당 정보를 해남군에 제공하고, 한전MCS 해남지점은 세대별 검침, 전기요금고지서 송달 시 위기가구로 확인된 정보를 군에 제공하게 된다.

해남군에서는 협약기관으로부터 받은 위기가구 정보 확인 시 즉시 현장 방문을 실시해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남군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해남군 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탄탄한 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차진 부군수는 "한전해남지사와, 한전MCS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해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무안군, 초·중·고·대 신입생 입학 축하금 지원

무안군은 오는 15일부터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중·고·대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군은 2022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 이후 지난해부터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 10만 원, 대학 신입생 1인 100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과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신입생이다.

신청 방법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부모(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며, 대학생의 경우 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입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남·여·오·홍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집중신청 기간 남·여 주민의 경우 남·여복합주민센터, 오·홍 주민의 경우 오·홍행정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현장에서 축하금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무안=김상문 기자

신안,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 선정... 150억원 확보

청년·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 기대

신안군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으로 청년인구의 유입 및 유출을 막기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 사업(150억 원)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 사업은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이 갖추어지고, 출·퇴근 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청년들이 정착하기에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압해읍을 지정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 인근에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공공기관이 있어, 젊은 층의 욕구에 충족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사업 선정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신혼부부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주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안정을 위한 연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비 절감 등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으로 전남으로 청년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안=강종복 기자